

#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 위축세 심화

### 주택사업·분양 경기지수 '뚝'...시장 기대감 약화 상가·오피스텔 공실률 높고 수익률은 크게 떨어져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의 위축세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주택 사업자들의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으며 상가·오피스텔을 찾는 자영업자들이 줄면서 공실률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2일 내놓은 3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3.0으로 2017년 9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

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전망치(85.7)보다도 17포인트나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지역 주택사업자들의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들어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광주지역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HSSI 2월 실적치도 광주의 경우 71.8을 기록, 그나마 기대감이 남아있던 전달(81.4)보다 체감경기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전망치도 59.0으로 50선을 뚫지 못하며 분양시장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앞서 광주지역 주택사업 경기를 판단하는 '3월 광주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HBSI) 전망치도 74.2로 전월 전망치(90.3)보다 16.1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급등했던 데 비해 하락세가 미미하다보니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 당분간 시장은 더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구원은 "주택사업자의 분양사업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전국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뿐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다보니 광주·전남지역 오피스·상가 공실(空室)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연간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사무실 공실률은 17.0%로, 7대 광역시 중 인천(17.3%) 다음으로 높았다. 전남의 사무실 공실률도 2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다보니 수익률이 좋을 리 없다.

부동산114가 전국 오피스텔의 연도별 임대수익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수익률은 6.40%로 전년도(6.53%)보다 떨어졌다. 광주지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난 2011년(7.97%)을 기록한 이래 7.28%(2012년)→7.16%(2013년)→6.85%(2014년)→6.73%(2016년) 등으로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도 4.98%로 처음으로 5% 선이 무너졌다.

상가도 비슷해 중대형 상가를 찾는 임차인도 줄면서 공실도 많아지고 있다.

광주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2%로 전국 평균(10.8%)을 훌쩍 넘어섰다. 전남 지역 중대형상가 공실률도 2017년 4분기(11.9%) 이후 12.3%(2018년 1분기)→11.9%( " 2분기)→12.1%( " 3분기)→13.8%( " 4분기) 등으로 상승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 코스피        | 2157.18 (+19.08) | 금리(국고채 3년) | 1.81 (0.00)     |
| ↑ 코스닥        | 754.76 (+15.67)  | ↓ 환율(USD)  | 1129.80 (-3.90) |

## 기아차 노사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합의

### 14일 조합원 찬반 투표

기아차 노사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방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를 열고 투표로 확정할 예정이다.

12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549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미지급금의 경우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려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상여금은 75%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생산직 2교대 근무자(평균 근속 20.2년 기준)의 경우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났다. 수당도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이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담화문에서 "9년 간 이뤄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통상임금 9년간의 논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국광산업진흥회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 마케팅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최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광통신 전시회(OFC-Optical Fiber Communication Conference) 및 일본 라이트페어(Lighting Fair)에 참가, 공동 홍보관을 마련하고 광주를 비롯한 국내 LED조명·광통신 기업 31개사의 수출 마케팅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이번 전시회에서 광통신 부품·시스템, 5G, 사물인터넷(IOT) 기반 차세대 광학 접속기, LED 식물공장 환경제어시스템, 스마트 LED보안등, LED조명제어시스템, 태양광 LED 가로등 등 광융합산업 제품을 전시,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참여, 국내 광융합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처음 수출학교' 운영

### 광주세관, 28일~4월 26일까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준비부터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알려주는 '처음 수출학교'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출 경쟁력 증진에 필요한 제품 생산하면서 수출방법과 관련 정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출을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시장조사 기법, 온오프라인 바이어 찾는 방법 등 수출 준비부터 수출입 실무와 FTA 활용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와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또한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아

마존에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하기까지의 절차를 실제 스케줄에 맞춰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소벤처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트라 등 각 기관의 수출지원사업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과 인력난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워 정부지원에서 소외됐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각 기관의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나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로만 상담이 제한돼 업체는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해당기관을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교육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살림(062-383-1136),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062-531-6667)로 문의.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안정이나 개혁이나... 대한건설협 광주시회 회장선거 본격화

### 이권수 고운건설대표·김영주 태호종합건설대표 후보 등록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감함으로써 새 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광주시회가 설립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치러지는 데다, 각각 협회 회장·부회장으로 협회 운영을 둘러싼 개선 방식이 서로 달라 경쟁 구도도 뚜렷하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12일 고운건설 이권수(59) 대표와 태호종합건설 김영주(59) 대표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170개 회원사 투표로 결정된다.

이번 선거는 광주시회가 설립된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경선으로, 후보자의 성향과 색깔도 다르다.

현재 회장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이대표는 고운종합건설을 지난 1987년 설립해 시공평가액 492억5000여만원(2018년 기준) 규모의 회사로 키웠다. 광주시회 부회장으로 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김대표는 시공평가액 36억4000여만원

(2018년 기준)의 태호종합건설 대표다.

두 후보 모두 광주시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협회 운영 방향을 내건 공약에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이대표는 화합 속에 협회의 점진적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김대표는 회원사보다 많은 비회원사들과 건설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소규모 중소건설업체들의 목소리로 협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지기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자연장·수목장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람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062) 372-7878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